

프로폴리스의 위력

(피를 맑게 하면 만병을 다스린다)

-위염, 암, 류마티스, 요통, 생리통, 간경화등-

두리원 대표 김해웅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지난호 이어서-

4. 프로폴리스의 항균작용

합성 물질에 대한 효력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듯이 자연에서 생산된 어느 한 물질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 알기까지도 보통 수십 년이 소요된다. 유효한 물질로 인정될 때는 거기에 전념하여 연구하는 인원만도 수십명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프로폴리스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없지만, 이웃 일본에서는 상당수에 이른다. 구라파 쪽에서는 저명한 학자들 가운데 프로폴리스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일본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프로폴리스의 정체가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의 주성분은 플라보노이드로 알려져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염색체로써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00 여종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후라보노이드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라비에(Dr. P. Lavie) 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후라보노이드의 연구는 193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단백질에 영향을 주어 탄소동화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혈작용과 혈액 정화 작용을 하게 된다. 비타민의 상승 효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후라보노이드스에 적용되는 질병은 당뇨병, 심이지관염, 위출혈, 방광염, 요도의 염증, 치질, 망막염, 고혈압 등이다. 프로폴리스에서 항생 성분을 처음 발견한 학자는 빌라누에바(Pr U. H Villanueva) 교수다. 1964~1970년에 피노세모리나(Pinocemorina)를 발견했다.

식물마다 꽃가루의 성분이 다르듯이 프로폴리스도 식물마다 성분이 다르다. 꽃가루는 벌들이 반입하는 그날 바로 벌통 입구에서 채취되기 때문에 어느 꽃에서 채취되는 꽃가루라는 것이 바로 식별이 되지만, 프로폴리스만은 벌통안에서 수개월 동안 저장되었던 것을 채취한다. 그 양은 1년 내내 모아 보

았자 100~200g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는 적은 양이고 어느 식물에서 채취하여 온 나무의 진액인지 분별할 수 없다. 단, 소나무 냄새가 많이 풍길 때, 솔잎과 소나무의 진액이 더 들어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성분이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왕벌의 산란 전 벌집 안을 코팅시켜 프로폴리스의 항균 작용이나 살균 능력이 강하도록 소독시킨 것을 보면 벌들이 인간보다 먼저 프로폴리스의 효능에 대해 알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이 이것을 활용한 것도 수 천년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독일의 프렌즈 코헤즈(Dr. Prenz Koegler)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아래 열거된 박테리아는 24시간 내에 살균될 수 있었다"고 했다.

유해 대장균
후루오레스센스균
레코노스투균
고초균
디프테리아균
세레우스균
아에로세로우스균
아에로제네스균

"목안의 염증이나 디프테리아 치료에는 열을 가하지 않은 프로폴리스를 갖고 실험하였을 때 스트렙토마이신보다 더 우수한 살균력과 항균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뢰웨레이슬(Dr. Feuereisl) 박사는 강한 항균력을 갖고 있어서 결핵균 예방에 적합한 물질이라고 했다. 영국에서는 사경을 헤매던 암환자들이 프로폴리스로 인해 많이 소생되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연구기금으로 100만 파운드까지 모금해서 프로폴리스 연구기관에 기탁까지 했다.

5. 동물 치료에 사용된 프로폴리스

개발된 약의 효력이 부작용을 알기 위해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실험용 쥐다. 여기에서 효력과 안정성이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인체에 적용된다. 동물에만 사용되는 전용 약제도 인체에 사용되는 약제와 동일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하급품은 주로 동물용으로 사용한다. 동물에 사용되는 용량도 체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하여서 사용하면 된다.

20kg 나가는 개(犬)에게는 성인의 3분의 1, 300kg 나가는 소(牛)는 5~6배를 사용하면 된다.

프로폴리스를 동물에 제일 먼저 사용한 나라는 소련이다. 소련 바스크지방의 가축연구소에서 1965년에 유방염, 아프타열, 탄저(炭疽)병에 걸려 신음하는 105 마리의 소를 선정하여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였을 때 놀라운 것은 에스트레프트마이신(Estoreptomycine), 페니실린(Penicilline), 노보카인(Novocain)을 사용하였을 때보다도 반응이 빨리 절반이 시간에서 동등한 효력을 나타냈다.

프로폴리스의 지속 효과도 일반 항생제들보다 수 시간이나 더 연장되었다. 이런 복합적인 조사를 하는 도중에 건강하지 못하였던 700마리의 소, 600마리의 돼지, 150마리의 양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프로폴리스로 인해 여러가지 동물의 병이 치료되었다.

괴사간균병중
브루셀라열(열병의 일종)
아프타열
식중독
위, 장의 염증
상처의 반흔(癍痕) 형성
화상 I, II도
출혈
노제마병(꿀벌에 기생하여 생기는 병)
유방염

6. 보조 치료제로도 우수하다.

입원한 환자에게는 담당의사가 주는 약 외에는 다른 약은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간병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을 사용할 때 치료에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프로폴리스를 자연항생물로 생각하고 수술 즉시 복용하였다가는 봉합자리에서 화농될 수도 있다. 이것을 필자의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프로폴리스는 수술 후 30일 경과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의사는 혈관을 수축시키려고 하는데 환자는 확대시키는 것을 사용하면 병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와 반대로 의사는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반작용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 환자측에서는 이러한 것은 약리작용에 의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약리작용은 1g을 복용해야 할 때 1g을 복용해야지 2~3g 과하게 복용했을 때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약리작용이다.

꽃가루(花粉), 로얄제리, 꿀은 약리작용이 아닌 영양학 작용에 의해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밥과 같이 평생 먹어도 괜찮은 1차 식품이다. 이러한 것은 1g 먹어라 할 때 3~4g을 먹어도 인체

에 부작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이 방면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면역 강화 식품으로는 최고의 1차 식품이지만, 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픽승 의사는 입원환자 294명을 선정하여 이 가운데 108명에게는 종전의 방법대로 치료를 하면서 프로폴리스를 보조 치료제로 첨가시켜 주고, 나머지 186명의 환자에게는 종전 치료 방법대로 하면서 프로폴리스는 주지 않았다. 2주일 후에 결과를 조사했을 때 프로폴리스를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였던 108명 중에서는 90%에 해당되는 98명이 완치되어 퇴원한 반면,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186명 중에는 55%인 102명이 완치되어 퇴원을 했다. 2~3일 전에 필자에게 있었던 일이다. 아침 4시반에 일어나 새벽기도에 갈 때 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에서 영하 3~4℃ 내려가는 날은 많지 않았다. 그런 추운 날씨인데다 옷을 허술하게 입어서 오는 단순 추위로 생각했다.

집에 돌아 와서는 7시차를 타기 위해 옷을 갈아입기가 바쁘게 출발했다. 9시에 영천에 있는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다소 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온 탓으로 생각했다. 몇 군데 일을 보고 저녁에 돌아 올 때는 추운 것이 단순히 추위가 아니고, 몸에 미열 때문에 오는 추위로 보였다.

9시집에 돌아와서 체온을 재었을 때는 38.4℃ 올라가는 높은 열이었다. 집에 있던 아스피린 2알에 프로폴리스가 들어 있는 [꿀프로-킹]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떠먹고, 누우니 오한이 오기 시작해서 방안의 온도를 더 높였다. 2~3시간 잠을 자면서 땀을 흘리고 나니 추운 것이 없어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평시와 다름없는 건강한 몸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열이 있었고 저녁에는 높은 열까지 있었지만, 아스피린 2알로 깨끗하게 나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스피린+프로폴리스의 상승작용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여긴다.

7. 봉산물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일반인들 가운데도 사과나 복숭아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꽃가루(花粉), 프로폴리스, 벌침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은 올 수 있다. 꿀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옷나무 꿀에서나 올 수 있다. 양봉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원주의 백형수(강원밀봉원장)선생은 “옷나무 집단



지에 가서 꿀을 채취할 때 구경 온 아주머니들에게 꿀을 몇 손갈씩 주었던 것이 옷이 올라서 크게 당황했던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 때 생산한 꿀은 모두 꿀벌의 겨울 먹이로 사용했다고 했다. 옷나무 꿀 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꿀은 국내에서는 없다. 로얄제리는 어린 일벌의 인두에서 내는 점액물 질이고, 여왕벌의 먹이가 된다. 로얄제리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가장 심한 것이 벌침의 독에서 오는 알레르기이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고, 침 끝주머니 속에는 개미산이라는 독이 들어 있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위급할 때만 사용한다. 침을 사용하게 되면 침 부위가 빠져나가 12시간 이내 벌은 죽게 된다. 사람이 벌에 쓰이면 그 부위가 붓고,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심장의 부담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하루가 지나면 그 부위가 가려워서 굵게 된다. 부기가 빠지기까지는 보통 5~7일이 소요된다. 이 때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식초(양조 식초)를 발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려움이 심하면 성인은 항히스타민제인 아빌을 1알 먹으면 쉽게 가라앉는다. 꽃가루를 그대로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옷나무 꽃가루나 개옷나무 꽃가루에서 오게 된다. 꽃가루를 먹어서 배가 아픈 사람은 80~100명 가운데 1사람 정도 올 수 있다. 이것은 필자가 꽃가루를 준 사람 가운데 배가 아팠던 사람의 확률이다. 뉴욕에서 개업하시는 염태환(한의학) 박사께서도 이러한 수치가 나와서 꽃가루를 꿀에 발효시켜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였을 때 위가 아픈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꽃가루의 단단한 섬유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벌통을 내검하면 프로폴리스를 접하게 된다. 프로폴리스를 접촉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김석호(63세,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마지리) 할아버지께서는 수년 동안 양봉을 하였지만, 벌통만 만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와서 벌을 볼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내검을 하신다고 했다. 이런 사람은 200~300명 가운데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통계는 양봉업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올 수 있는 비율이다. 양봉인이면 대다수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포함시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프로폴리스를 복용하였을 때는 더 많은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프로폴리스를 채취하여 몇 년 두었다가 사용하면 알레르기에서 오는 반응을 많이 줄일 수 있다.

8. 점액도를 낮춘다

필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전교인이 헌혈을 한 바 있었다. 그 중에서도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필자와 김성진씨 두 사람이 사전 피검사에서 점액도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하고 싶었던 헌혈을 하지 못했다. 김성진씨는 “나 같은 사람이 헌혈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불만을 토하기도 했다.

내 자신이 헌혈을 할 수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며칠째 먹고 있는 프로폴리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김성진씨도 프로폴리스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경통에 프로폴리스를 먹어 보니 좋더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한 통을 갖고 간 것이 생각되어 『프로-킹』(꽃가루, 프로폴리스와 혼합된 것. 필자 이 개발품)은 잘 먹고 있느냐?고 하면서 물어 보았더니 “먹기가 편해서 꾸준히 잘 먹고 있다”고 했다. 프로폴리스가 혈액순환을 잘 시켜 주는 데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P 성분이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지만, 피의 점액도를 낮추어줌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체액이 산성화되면 혈은 탁해진다. 탁해진 혈이 맑아지면 산성체질도 알카리성 체질로 바뀌인다. 알카리성 체질이 될 때 콜레스테롤이 수치도 낮아지고 심장의 부담도 덜어준다. 아스피린(Aspirin)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신약 중에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알려져 있다. 진통 해열에는 뛰어난 약효과를 갖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혈전(血栓)에도 효과있는 것이 입증되어 하루 1알(325mg)씩 먹으면 심장마비나 협심증에도 효과가 있어 50%까지 재발을 방지해 준다고 한다. 진가가 높아져 가는 아스피린의 개발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민간요법은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도 있다. 몸에 통증이 있거나 열이 있으면 버드나무 껍질 삶은 물을 먹으면 통증이 가시고 해열이 되는 것에 착안하여 유럽 과학자들이 19세기초에 버드나무껍질에서 살리신(Salicin)이라는 성분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살리신에서 살리실릭산(Salicylic Acid)을 만들어 복용시켰을 때 위장 장애가 너무 심해 장복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을 독일 바이엘 회사에 근무하던 과학자 호프만(Hoffman)이 이를 보완하여 약효는 동일하지만, 부작용은 적도록하여 만든 제품이 1898년에 개발시킨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의 성분은 버드나무 껍질의 성분과 유사하다.

-다음호에 계속-